2006 아태지역 경제 사회 개관

세계 최고의 경제적 역동성

40 억 인구의 보금자리인 아태지역은 최근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아태지역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돌고 있으며, 향후 단기전망치를 보아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1995 년 이래 아태지역은 전세계 노동 생산성 증가에 60%나 기여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태지역의 역동성은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시장에 빠르고 경쟁력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 실적이 뛰어나다. 역내 교역량이 타지역과의 교역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역외국보다는 역내국과의 교역량이 크다. 이는 아시아 지역 소비자의 중요성이 신장되고, 글로벌 생산체계의 각 단계에서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주요 글로벌 생산체계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양대 견인차로는 중국과 인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제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여 성장중심축을 서구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다.

역내 국가간 다양성과 불균형

아태지역 내에는 고도의 다양성이 상존한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과거 “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소위 “네 마리

호랑이"로 불리던 홍콩(중국령), 한국, 싱가포르, 대만(중국령)도 있는데 반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새끼 호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리바시,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군도, 동티모르, 바누아투 등의 최빈국도 있다. 사회적 분쟁에 휘말려 견실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부족과 함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길이 막혀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실업자 총수는 증가세

최근 추세에 따르면, 급속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노동시장 상황은 2005 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ILO 추산에 따르면 2005 년 현재 실업인구는 8220 만 명으로(표 1.1 참조), 2004 년에 비해 140 만 명 늘어나 1.7%의 증가세를 보였다.[1] 실업률의 경우 2003 년 이후 4.6%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나 90 년대의 4.0%보다는 크게 증가했다. 동아시아 지역 실업률은 2004 년 3.7%에서 2005 년 3.8%로 소폭 증가한 반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는 2004 년 6.2%에서 2005 년 6.1%로 소폭 하락했으며, 남아시아는 5.0%로 변동이 없다.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 가속화에 힘입어 역내 선진국에서는 2004 년 4.8%에서 2005 년 4.4%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표 1.1: 아태지역 실업인구, 고용인구, 노동인구 **(단위:백만)**

	2000 년	2004 년	2005 년
실업인구	74.1	80.8	82.2
고용인구	1591.6	1690.1	1714.0
노동인구	1665.7	1770.9	1796.2

출처: ILO, 2005 년 글로벌 고용 추세 모델 (ILO 제네바 본부 발간)

[1] ILO, 2005 년 글로벌 고용 추세 모델 (ILO 제네바 본부 발간)

표 1.2: 아태지역 노동 시장 지표 **(단위: %)**

	실업률		고용 성장률	GDP 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연간 노동인구 성장률
	2004	2005	2005	2004	2005	2006 예상	2000	2005	2000-2005
동아시아	3.7	3.8	0.7	8.7	8.0	7.5	76.9	74.9	1.0
동남아시아/태평양연안	6.2	6.1	1.9	6.1	5.1	5.4	70.1	70.6	2.2
남아시아	5.0	5.0	2.3	6.9	6.9	6.2	59.9	59.6	2.3
역내 선진국	4.8	4.4	0.4	2.8	2.0	2.1	62.6	61.1	0.0
역내 개도국 총계	4.6	4.6	1.5	7.8	7.3	6.9	69.0	68.0	1.6
아태지역 총계	**4.6**	**4.6**	**1.4**	**6.7**	**6.2**	**5.9**	**68.7**	**67.6**	**1.6**

출처: ILO, 2005 년 글로벌 고용 추세 모델; IMF, 세계 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2005 년 9 월)
참고 : 2005 년 자료는 확정 데이터가 아님.

심각한 청년 실업

15 세 이상 24 세 이하 젊은 남녀가 실업률 증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05 년 현재 청년 노동인구는 전체의 20.5%를 차지하는 데 반해, 실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7%가 청년층이다. 청년실업률은 동아시아가 7.8%, 남아시아 11.3%, 태평양 군도국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무려 16.9%에 달한다. 청년실업률이 성인실업률의 1.5 배를 기록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한다면, 자료 수집이 가능한 국가 대부분에서 청년실업률은 성인실업률의 최소 두 배에 이른다. 인도, 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는 세 배를 웃돌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의 경우 네 배에 달한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청년층 중에서도 여성의 실업률이 높다.

ILO 는 청년실업률을 반으로 줄일 경우, 동아시아 국가 GDP 가 1.5~2.5%, 동남아시아는 4.6~7.4%, 남아시아는 4.2~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 여전한 골칫거리

완전실업률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완전고용과 열악한 근로 환경이며, 이러한 문제는 비공식 경제활동 인구에서 더욱 심각하다. 아직도 수백만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 안전시설 미비, 단기/비정규 고용 계약, 저임금, 불충분한 사회보장 혜택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역내 개도국 비농업 고용의 65%가 비공식 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백만 명이 아직도 자급형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경제성장과 고용의 괴리

아태지역 고용인구수는 2004 년 16 억 9000 만 명에서 2005 년 17 억 1400 만 명으로 2400 만 명 늘어나며 1.4%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6.2%라는 급속도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고용증가는 한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가능연령인구 대비 고용비율은 2004 년 64.6%에서 64.4%로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창출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현재 약 18 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경제활동인구는 거대한 규모인데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향후 10 년간 2 억 4 천만 명이 늘어나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동티모르,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 등, 근로빈곤층이 많고 비공식 경제활동 비중이 큰 국가에서 노동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이 좀더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속적인 고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태지역 전역에서 실업인구와 불완전고용인구를 줄이는 동시에 수백만의 신규노동력을 흡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역내 일부 개도국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추세로 인해 노동력 증가세가 주춤한 실정인데, 주로 중국, 홍콩(중국령),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노동인구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함께 기타 사회•경제 문제가 나타날 전망이다.

성차별은 감소세

지난 15 년간 성차별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 여러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부문에서의 격차를 극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자료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남녀간의 문맹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임금수준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남녀간 경제활동 참여율 차이가 심한 국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크게 신장되어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몇몇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부문 남녀간 임금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은 아직도 불리한 여건에서 차별 받고 있다.

생산성 증가와 임금인상의 불균형

1995 년 이후 아태지역 근로자 1 인당 총 생산량은 40%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여타지역 생산량 향상의 세 배에 달한다. 제조업 근로자 실질 임금 또한 아시아 대다수 국가에서 상승세에 있으나, 여전히 노동 생산성 향상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이탈한 근로자가 대량

유입되면서 빠른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1990 년에서 1999 년 사이 노동 생산성은 170% 향상되었으나 실질임금 상승은 80%에도 못 미쳤다. 1990 년에서 2002 년 사이 스리랑카 제조업 근로자 임금 또한 소폭 인상되었을 뿐이다.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1990 년 이래 실제로 제조업 분야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키스탄에서는 1990 년에서 2002 년 사이 8.5% 하락했고 인도에서는 1990 년에서 2001 년 사이 22% 하락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와중에도 인도에서는 같은 기간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84%나 증가했다. 이는 노동 효율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소득은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감소는 그리 크지 않다. 최근 아태지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개도국 근로자 노동시간은 세계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실정이다.[2]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6 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50 시간 이상인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3]

아시아 경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가가 균형을 이루고 생산성 증대로 인한 이득이 회사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과 생활수준 향상에도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혜택이 근로자와 사용자, 일반 대중에까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경쟁력과 성장 추구가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

[2] ILO <2005 년 아태지역 노동 및 사회 경향> 방콕, 23~24 페이지 참조

[3] 통계 부록의 표 III.2.3 참조

생산적인 양질의 고용 창출을 사회 및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목표로 삼는다면 아태지역 경제국은 끊임없이 경쟁력을 키워가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이동성 증대

남아시아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 이동이 발전의 중요한 한 단면이 되었다. 이주의 증가는 송출국내 노동력 증가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 근로자 260~290 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본국을 떠났다. 이주노동자의 50%이상이 남아시아 출신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지가 고향이다. 나머지는 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출신이다

이들 이주노동자의 수입국도 아시아 역내국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0%정도를 역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신규 이주노동자가 일본, 대만(중국령), 한국, 홍콩(중국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로 유입되고 있다. 이는 90%이상의 노동자가 역외로 떠났던 1970 년대 후반이나 1980 년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역내 이주가 늘고 있는 데는 인구통계학적 원인과 함께 아태지역 경제국 간의 통합 가속화를 들 수 있다.

노동력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송출국과 수입국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주에는 두뇌유출이나 의존성 증대위험과 같은 비용도 따른다. 뿐만 아니라, 수입국에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문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비정형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성장일로에 있어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주를 관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형, 비공식 근로 합의 하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학대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빈곤 감소는 상당한 진전, 근로빈곤층 문제는 아직도 심각

아태지역 많은 국가가 빈곤 감소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는데,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근로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2005 년 현재 17 억 1 천만 명을 웃도는 아태지역 근로자 중, 10 억 이상과 그 가족이 일일 소득 미화 2 달러의 빈곤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빈곤층 중 3 억 3600 만 명과 그 가족이 하루 1 달러도 안 되는 극빈층에 속한다. 15 년 전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나 아직도 아태지역 근로자 다섯 명 중 하나는 가족 일인당 하루 1 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5 년 현재, 가족이 미화 1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근로자 비중은 동남아시아 11.4%, 동아시아 13.4%, 남아시아는 34.2%에 달한다. 빈곤선을 2 달러로 조정할 경우, 근로빈곤층 비중은 동아시아 47%,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58%, 남아시아에서는 충격적이게도 84%에 달한다. 근로빈곤층의 생산성과 소득이 증대된다면 빈곤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빈곤 해소에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아동노동은 지역별로 큰 편차

2000 년에서 2004 년 사이에 아태지역 5 세 이상 14 세 이하 아동노동자 수는 5 백만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아시아 어린이 1 억 2230 만 명이 아직도 전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아동노동자의 64%에 달한다. 노동에 부적합한 어린 나이의 아동들이 위험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악의 경우 노예생활,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채무노역과 기타 강제노동, 군사분쟁 강제 동원, 성매매 및 포르노산업 종사, 기타 불법 행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노동은 건강상 위험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향후 성인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역내 모든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10 세 이상 14 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10 년 전이나 15 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감소세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는 거의 근절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팔의 경우, 10~14 세 아동의 40%가, 동티모르에서는 3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솔로몬 제도에서 그 비율이 20%를 웃도는 실정이다.

아동노동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이 바로 빈곤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는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인 태도나 미비한 법제도, 부실한 노동시장, 제대로 된 보건 및 사회 정책 부재와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환경 또한 아동노동의 원인이 된다. 정치불안과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생존전선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증가했다.

열쇠는 노동 시장 개혁

노동권과 기본 원칙에 맞추어 국내법을 보강하려는 시도가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터에서의 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 계약의 유연성 증대에 대한 요구와 근로자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 관련 상황은 우려스럽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고 대중이 위협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간과한 채 경제나 교역 목적에만 맞추어 노동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나날이 높아가는 세계에서는 경제•개발 목표와 견실한 노동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사회적 기반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입율 격차 증가

어느 기업, 어느 국가에서나 공히 나타나는 현상은 노조가 세계화, 구조조정, 민영화, 일자리의 비정형화로 인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행동방식은 이제 효과를 상실했고 과거의 소득이 재협상되고 있으며 목소리를 내는 일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태지역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조가입율은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지의 노조가입율은 3~8% 수준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로서 16~19% 정도이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역량도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사용자 단체 또한 기업 다양성이 심화되고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는 관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